(제44권 6호)

주현절 후 다섯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2월 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새 26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번 시편(Psalm) 15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2:1-12**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여겨주심으로"	찬양대
설 교 Sermon	**"죄를 사하는 권세"**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 54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여전히 죄악된 습관과 욕망을 좇아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되고 거짓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한글개역 **막2:10-11**)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 He said to the paralytic,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 (NIV **Mark 2:10-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6 (주일)	2/7 (월)	2/8 (화)	2/9 (수)	2/10 (목)	2/11 (금)	2/12 (토)
본문	창39 막9 욥5 롬9	창40 막10 욥6 롬10	창41 막11 욥7 롬11	창42 막12 욥8 롬12	창43 막13 욥9 롬13	창44 막14 욥10 롬14	창45 막15 욥11 롬1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9 오후7:30)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삿11:29-40)
토요 새벽기도회 (2/12 오전6:30)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시68:1-6, 32-35)

지난 주일(1/23)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4) – "내가 이를 이하여 왔노라" (막 1:32-39)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는 말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눅15:3-7)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 버린 양을 찾아나선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욱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정리하면, 크게 3가지(3:5)인데, 1)첫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막1:35), 2)두번째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인도**'이며, 3)세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